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자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21. 06. 06. (나해) 제2271호

대구주보



삼덕성당의 봄
새싹들이 봄을 알린다; 4 0 1 1 8 + 2 6 2 7 2 4 - 2 0 2 1

삼덕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탈출 24,3-8 **화답송** ◎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제2독서** 히브 9,11-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르 14,12-16,22-26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
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이스탄불의 어린 사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무처장 | 정수철 야고보 신부



“폭설이 쏟아져 내리는 이스탄불 밤거리에서 커다란 구두통을 멘 아이를 만났다. 야곱은 집도 나라도 말 글도 빼앗긴 채 하카리에서 강제 이주 당한 쿠르드 소년이었다. 오늘은 눈 때문에 일도 공치고 밥도 굶었다며 진눈깨비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작은 어깨를 으쓱한다. 나는 선 채로 젖은 구두를 닦은 뒤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물었다. 야곱은 전구알 같이 커진 눈으로 한참을 쳐다보더니 “빅맥, 빅맥이요!”라며 눈부신 맥도날드 유리창을 가리킨다. 학교도 못 가고 날마다 이 거리를 헤매면서 유리창 밖에서 얼마나 빅맥이 먹고 싶었을까. 나는 처음으로 맥도날드 자동문 안으로 들어섰다. 야곱은 커다란 햄버거를 굶주린 사자 새끼처럼 덥석 물어 삼키다 말고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담배를 물었다. 세 입쭈 먹었을까 야곱은 남은 햄버거를 슬쩍 감추더니 다 먹었다며 그만 나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창밖에는 흰 눈을 머리에 쓴 대머리 샬 소녀와 아이들이 유리에 바짝 붙어 뚫어져라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야곱은 앞으로 만날 때마다 아홉 번 공짜로 구두를 닦아주겠다고 까만 새끼손가락을 걸며 환하게 웃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길 건너 골목길로 뛰어 들어갔다. 아, 나는 그만 보고 말았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몰래 남긴 햄버거를 손으로 떼어 어린 동생들에게 한 입 한 입 넣어주는 야곱의 모습을 ...

이스탄불의 풍요와 여행자들의 낭만이 흐르는 눈 내리는 카페 거리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나라 빼앗긴 쿠르드의 눈물과 가난과 의지와 희망을 영성체처럼 한 입 한 입 떼어 지성스레 넣어주는 쿠르드의 어린 사제 야곱의 모습을.”

박노해 시인의 시집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에 나오는 글입니다. 시인은 어린 야곱의 모습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성체 성혈의 신비를 거행하는 사제의 모습을 떠올렸나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때 말입니다.

무엇이든 부여잡고 내놓지 않으며 사는 세상,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몸과 피를, **성체 성혈**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톨릭근로자회관 관장 | 이관홍 바오로 신부

지난 4월 22일, 리비아 난민들을 태우고 유럽을 향해가던 배가 지중해에서 침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난민들은 이를 동안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면 당한 채 결국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사흘 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주일 삼중기도 훈화에서 “이 명백한 비극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매우 슬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또한 이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한 이들의 회개를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이 비극이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0여 년 전 우리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피난길을 가야 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기에,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와 빈곤 등을 피해서 입국한 난민들이 대구·경북지역에만 2천여 명, 전국에는 6만여 명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대륙(에티오피아, 기니, 라이베리아, 말리)과 중동 지역(시리아, 예멘, 이집트) 등지에서 온 많은 난민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목숨걸고 한국을 찾아온 난민들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힘겹게 취업했던 난민들조차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당장 아기들에게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를 마련할 수 없어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또 집세나 공과금을 낼 수 없어서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힘겨운 삶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생필품들을 나누고, 함께 병원에 동행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글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피부색도, 문화도, 종교도 다른 난민들이 낯설었지만 이제 가톨릭근로자회관을 찾는 그들이 정말 이웃처럼,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살기 위해 찾아온 그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환대’ 받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필문**



그림 : 4대리구 사회복지사 윤여국 테오도로

지난 5월 30일 성모당에서 조환길 대주교님 주례로 라이베리아와 시리아 출신 <난민 가정의 아동>에 대한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난민 지위 인정과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가정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복합니다. 또한 교구청 특수 사목 사제단에서는 사순 기간동안 모금한 사제 기금으로 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후원금을 보내 오셨습니다. 이어 대안성당 이주민 미사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직접 조리하고 준비한 음식과 선물을 전하며 한국 생활의 정착을 응원했습니다. 교구민들께서도 주위의 이주민들과 난민들에게 하느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친교가 머무는 곳,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 담당 | 반유닛 수녀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라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삶의 등불로 밝히며 생활하려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찾아오는 곳,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는 ‘경산시 남매로 20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성경말씀을 통하여 신자들의 재교육과 영성생활을 심화시키며, 지역교회의 봉사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1983년에 ‘어버이 성경모임’이란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38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7,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경산 베네딕도 성경학교’로 개칭하여 지역교회 신자들이 성경말씀을 묵상하고 생활을 나누며 영성을 심화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되며, 심화과정은 일반과정을 이수한 이후의 과정입니다. 일반과정은 매년 2월 말에 신입생 모집과 개강을 하지만, 심화과정은 2학기인 9월 초에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저희 학교의 특징은 성경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로 통독과 묵상을 돕고, 묵상을 통해 개인의 영성을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묵상과 생활을 나누는 사랑과 친교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변화된 신자들은 성가정을 이루며, 지역교회의 봉사자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38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성경학교로서의 자랑을 한다면 성경학교를 졸업한 교우분들께서 성장한 자녀들에게 권고하여, 그 자녀들이 성경을 공부하러 오는 것입니다. 베네딕도 성경학교의 홍보대사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이며, 그들의 변화된 신앙과 영성생활이 홍보의 대사임을 증명합니다.

‘성경말씀’은 혼잡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쉬어 갈 수 있는 고요의 자리, 위로의 자리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마태 11,28) **필독**

	교과과정	내용
일반	구약 2년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신약 2년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심화	성문서 3년	시서와 지혜서, 축제 오경
	다시 읽는 구약성경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강의와 묵상기도>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구약과 신약<강의와 묵상>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홍필주(洪弼周) 필립보는 충청도 덕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790년경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로부터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아명은 ‘문갑’(文甲)이다.

그보다 먼저 교리를 배워 입교한 계모 강완숙 골룸바는 아들 필립보가 입교한 뒤로는 자신이 이해한 교리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필립보 또한 어머니의 열심한 덕행을 모범으로 삼았다.

한양으로 올라온 필립보는 가족과 함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795년 5월에 어머니 골룸바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키자, 이때부터 신부의 복사가 되어 여러 가지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또 홍익만 안토니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교회 일을 도왔다.

이후 필립보는 자신의 집이 조선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자, 주 신부와 신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이곳저곳으로 집을 옮겨 다녔다. 또 한편으로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신심을 쌓아갔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필립보의 이름은 일찍부터 박해자들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되어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즉시 어머니와 필립보를 비롯하여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홍필주 필립보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주문모 신부의 행방과 그동안의 행위를 조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혹독한 형벌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은 차츰 약해지게 되었다. 이때 조사를 받으러 가던 어머니 골룸바가 그를 보고는 “필립보야, 너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위에 임하시어 비추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권면하였다. 이에 그는 즉시 마음을 돌이켜 박해자들을 향해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어머니는 먼저 순교하였지만, 필립보는 오랫동안 옥에 갇혀 고통을 받은 후에야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고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10월 4일(음력 8월 2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필립보가 사형 선고를 받기 전에 형조에서 말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았다.

“계모와 한마음으로 천주교에 깊이 빠졌으며, 외국사람(주문모 신부)을 기이한 재물과 같이 생각하여 아버지처럼 모셨으니 그 죄가 대단히 큼니다. 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 모여 비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혹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비록 사형을 받을지라도 달게 여기겠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홍필주 필립보
(1774 ~ 1801년)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하반기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와 같은 기존 신앙 체험 내용이 아닌 성경 말씀을 통해 일상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분량 준수)

기간 및 방법 | 2021년 6월 11일(금)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II.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②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현대 감각을 거스르지 않고자, 곧 유행을 따르고자, 또는 인간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에서 시류에 뒤처져 있다고 느껴서, 혼인을 옹호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한편 혼인이 출산의 의무만을 유독 강조한 채로 제시되어 혼인 결합의 목적에서 사랑을 키워 나가라는 부르심과 상호 도움의 이상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계획과 사고방식과 구체적 문제들에 맞갖은 가르침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신뢰를 일깨워 주지 못하면 이러한 지나친 이상주의는 혼인을 좀 더 바람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 35-36항)



말씀의 해 안내지 21호 정답

1. ③ 2.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을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요.” 3. xooxooo 4. 인구 조사, 사흘 동안 흑사병이 퍼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 말씀의 해 안내지 ‘성경알기’ 정답을 사목국 다음카페와 대구주보 6면에 게재합니다. 지난 1~20호 정답지는 7월호와 함께 배부됩니다.

사랑은 흐르는 강물처럼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7일(월) 11:00 성동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8일(화) 11:30 계산성당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7일(월) 11:00 계산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9일(수) 10:00 평화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7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6월 12일(토) 10:00 월성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6월 7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	-

성소 | 피정

효령하늘집 피정

개인, 단체: 10명 이내 / 연중가능
산내 치유 피정: 6.15(화)~16(수)
문의: (054)382-0091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자·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6.13~16(추차도) / 6.19~21

7.23~25 / 7.30~8.2 / 8.5~8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해외선교 모집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대구가톨릭대학교 개교 107주년 기념 _ 故 박형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기증유물 특별전

신부님의 선물展

일시 : 2021. 5. 14(금) ~ 2022. 2. 28(월) / 장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역사·박물관 김조자 기획전시실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셉)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공장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온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 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리프팅·알러지·사마귀·피부종양

원장 박 상 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답병원 3층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문제만(제르만) 주교
1957년 6월 8일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학점은행(사회복지·보육·평생교육·교양)

취미·교양 / 자격증 / 음악원(1:1레슨)

스마트팜 교육 / 실무과정

문의: 660-5554~6

<https://conedu.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 여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화상영어 상시 모집중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래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칼럼바, 문인화,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오카리나,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ME주말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대구ME 쇠신주말: 7.3(토)~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ME주말을 체험하신 모든 부부

첫 주말의 감동을 배우자와 함께하는

힐링여행 / 문의: 983-0521

성경 통독

일시: 매주 수 10:30~16:00(미사 15: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1호선 설화명곡역 2번 출구 9:40

준비물: 성경 / 문의: (010)9045-0191

수지에니어그램 모집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피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6.12(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6.13(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ch.co.kr>

채용 | 안내

성요셉복지재단 종사자 채용

업무: 생활재활교사, 조리원

자격: 관련 업무 자격소지자(60세 미만)

문의: (054)954-4176

<http://josephtown.or.kr>

용평마을 양로원 종사자 채용

업무: 생활지도원, 조리원

마감: 6.15(화)

주소: 영천시 화산면

문의: (054)334-2006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재락(마태오), 김경희(플로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Since 1963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한국성지 167 완주
(주)마카엘여행사 Michael Tour
6.18(금)~6.20(일) 춘천교구 3일
7.19(월)~7.22(목) 대전교구 4일
제주성지순례 3일/4일
6.28(월)~7.1(목) 7.2(금)~7.4(일)
7.12(월)~7.14(수) 7.26(월)~7.29(목)
마카엘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발아 정형외과
AL-A
무지외반증, 족저근막염
발목 인대 손상, 평발 깔창 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대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마스크(의약외품) 100장
KF94(국 내 산) 35,000원
비말 AD 덴탈 100장
10,000원
대표 장 종 화(분도)
분도상사 053-425-4701
010-3537-5559

곽재혁신경과
DR. KWAK JAEHYU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발병원 4층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